



판전의 경관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봉사자들.



주련과 문살에 내려앉은 먼지도 붓으로 꼼꼼히 털어낸다.



봉은사 대웅전 부처님을 소제하는 모습. 붓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동시에 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한다.

“먼지 털면서 번뇌도 쓸어냅니다”

【‘도량청정 마음청정’ 봉은사 첫 소제법회 현장】

법당 부처님 어깨에 내려앉은 먼지는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
 자칫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만 앞서 대중 물걸레로 불상이나 불화를 닦아 낭패 본 적이 사찰마다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문화재 청소법을 모르는 탓이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올바른 성보(聖寶) 문화재 청소법을 배워보는 이색 ‘소제(掃除)법회’가 12월 9일 서울 봉은사주지 명전에서 처음으로 봉행돼 눈길을 끌었다.
 ‘소제’란 빗자루로 쓸고 버림을 통해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다. 전통적으로 부처님오신 날이나 초하루법회 같은 큰 법회를 앞두고 사찰에서 행해왔다. 하지만 소제가 정기법회로 정착되지는 않아, 오늘날 정기적으로 소제 행사를 진행하는 사찰은 거의 없는 편이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1년에 한두 번 법당을 청소하

했다. 소제의식은 삼귀의와 신중청(神衆請), 거목(擧目), 향화청(香花請), 다계(茶僞), <반야심경>, 불설소제길상다라니(佛說消災吉祥多羅尼), 보회향진언(普回向眞言)을 외는 순서로 진행됐다. 도량을 청소하기에 앞서 사찰의 나쁜 기운을 없애고 보호해달라는 뜻에서다.
 문화부장 수경 스님은 “소제가 먼지를 털고 때를 닦는 것이라면, 수행은 마음의 때를 털고 닦는다는 점에서 소제와 수행은 동일하다”며 “저를 출가한 이에게 소제를 시키는 것도 이러한 수행의 원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법회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스님은 부처님이 제자 주리반탁가에게 빗자루를 이용해 소제하는 법을 일러준 예를 들며 “비질을 하며 마음의 번뇌·망상을 털어내는 소제법회를 통해 도량청정이 곧 마음청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위원회의 지휘로 진행됐다.
 대웅전 소제는 불당의 공양불과 촛대를 지우는 것으로 시작됐다. 붓으로 불상의 먼지를 털고 옆에서는 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했다. 큰 붓으로 대강 쓸고 난 후 작은 붓으로 부처님의 머리인 나발(螺鬘)과 옷주름을 세세하게 털어냈다. 붓자루가 스쳐지나가는 곳마다 켜켜이 묵은 먼지가 일었다. 소제를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장갑과 마스크에 먼지가 잔뜩 묻었다. 사찰 인구의 사천왕상에도 소제의 손길이 미쳤다. 빗자루로 거미줄을 제거하고 전각의 유리도 깨끗이 닦았다.
 경관을 보관하고 있는 판전은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 청소의 시작을 알렸다. 판전의 끝자락에 쌓인 묵은 먼지를 털고, 주련과 문살 위의 모래먼지도 깨끗이 털었다. 대강의 청소가 끝난 후 판전에 모서진 불상의 좌복을 제거했다. 불상 아래 깔아두는 좌복은 습기를 흡수하고 수행을 이루지 못해 불상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습기와 열폭으로 가득찬 좌복을 보며 신도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두 시간여의 소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선 불당에 모였다. 머리에 은통 먼지를 뒤집어썼지만 얼굴 표정은 더 없이 환하다. 봉은사 내의 9개 전각을 관리하는 모인인 전각부 부장 최무에게 보살은 “평소 전각 청소를 하며 먼지가 많아 안타까웠는데 올바른 소제 방법을 배워 여쭙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정갈해진 도량만큼이나 봉은사를 찾는 신도들의 마음도 청정해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국장 수경 스님은 “사찰 소제법회는 성보를 깨끗하고 여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소제 때마다 성보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각 사찰마다 정기적으로 소제법회를 봉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앞으로 전국 사찰에 매뉴얼을 보급해 소제법회를 정제화 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는 전국 사찰이 정기적인 소제법회를 봉행해 성보를 체계적이고 정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재 청소 배우는 최초 ‘소제법회’ 눈길 정갈해진 도량만큼 신도들 마음 청정해져

거나 불상의 먼지를 털어내는 정도에만 청소를 하고 있다. 실제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의 현장조사 결과 불화에 곰팡이가 피거나 불단 위에 쥐가 죽어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예가 많았다.
 조계종 문화부는 각 사찰이 성보문화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문화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제법회 의식을 마련했다. 이를 각 사찰마다 보급해 성보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단 차원으로 처음 소제법회를 봉행한 봉은사는 12월 9일 법당에서 소제의를 봉

주지 명진 스님은 “일전에 한 신도가 영산전 불상을 물걸레로 닦아 얼룩진 예가 있었다”며 “다행히 이번에 조계종 문화부가 성보 관리요령을 알려주는 기회를 마련해 부처님을 청정하게 잘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소제법회 봉행을 밝혔다.
 소제법회에 동참한 봉은사 국장스님들과 신도 100여 명은 4개 조로 나뉘어 대웅전과 판전(板殿), 사천왕상, 범종을 맡았다. 봉사자들은 장갑과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하고 자신들의 소제구역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붓과 청소기, 마른 걸레 등을 썼다. 소제는 문화재 보존관리전문가 김홍식 위원(조계종 성보보

관)의 지휘로 진행됐다.
 대웅전 소제는 불당의 공양불과 촛대를 지우는 것으로 시작됐다. 붓으로 불상의 먼지를 털고 옆에서는 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했다. 큰 붓으로 대강 쓸고 난 후 작은 붓으로 부처님의 머리인 나발(螺鬘)과 옷주름을 세세하게 털어냈다. 붓자루가 스쳐지나가는 곳마다 켜켜이 묵은 먼지가 일었다. 소제를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장갑과 마스크에 먼지가 잔뜩 묻었다. 사찰 인구의 사천왕상에도 소제의 손길이 미쳤다. 빗자루로 거미줄을 제거하고 전각의 유리도 깨끗이 닦았다.
 경관을 보관하고 있는 판전은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 청소의 시작을 알렸다. 판전의 끝자락에 쌓인 묵은 먼지를 털고, 주련과 문살 위의 모래먼지도 깨끗이 털었다. 대강의 청소가 끝난 후 판전에 모서진 불상의 좌복을 제거했다. 불상 아래 깔아두는 좌복은 습기를 흡수하고 수행을 이루지 못해 불상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습기와 열폭으로 가득찬 좌복을 보며 신도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두 시간여의 소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선 불당에 모였다. 머리에 은통 먼지를 뒤집어썼지만 얼굴 표정은 더 없이 환하다. 봉은사 내의 9개 전각을 관리하는 모인인 전각부 부장 최무에게 보살은 “평소 전각 청소를 하며 먼지가 많아 안타까웠는데 올바른 소제 방법을 배워 여쭙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정갈해진 도량만큼이나 봉은사를 찾는 신도들의 마음도 청정해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국장 수경 스님은 “사찰 소제법회는 성보를 깨끗하고 여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소제 때마다 성보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각 사찰마다 정기적으로 소제법회를 봉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앞으로 전국 사찰에 매뉴얼을 보급해 소제법회를 정제화 해 나갈 계획이다.

글=여수경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성보 관리 이렇게 하세요

- ① 성보 소제에 앞서 장갑, 마스크, 덧버선 등을 착용한다.
- ② 성보 주변을 깨끗이 하고 성보를 소제할 후에도 다시 주변을 정리한다.
- ③ 먼지는 위에서 아래로 털어낸다. 먼지는 붓을 사용하되 먼지 큰 평붓으로 여러 번 부드럽게 먼지를 털고, 조각된 부분은 작은 붓을 사용한다. 붓은 직각이 되지 않도록 45도 정도 눕혀 사용한다.
- ④ 먼지를 털어내면서 동시에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먼지를 흡입한다. 청소기는 성보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유지한다.
- ⑤ 성보보존을 위한 적정 온도는 19±2℃이고, 습도는 55~60%를 유지한다. 습도가 70%이상일 때는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습기제거에 만전을 기한다.
- ⑥ 불상 아래의 좌복은 습기를 흡수하고 수행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 불상 : 부드러운 붓으로 먼지를 제거한다. 습기찬 방석은 제거한다.
- 불화 : 맑은 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뒤집어가며 건조한다. 붓으로 액자를, 지지대, 고리 등의 먼지를 제거한다.
- 불구 : 금속류는 깨끗이 닦아 청결을 유지하고 복조류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건조시키고 먼지를 제거한다.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역주, 포대화상향로

소 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의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 35 × 50cm (대) 42 × 65cm 60 × 20cm	울마니반 메울족자 60 × 20cm
--	---	---------------------------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목역주/흑단목부속전주
 크기 : 8mm × 10mm × 12mm
 원가 125,000원

흑단목역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역주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이 늘 수 있는 미덕과 복원을 이룩하여 죽어 가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고, 예불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74 송영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온열복대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설보존 기입
 전지파 장애실험, 전지파 환경인증, 실용실험출원

시야청 의류기기 05-0626로 인증

허리에 차가운 해도 온열복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뎀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의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 불균형에 있어 속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속뎀(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된다. 치기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양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액차 : 농협 170-12-056037 예영 / 일일일 공영에도 상담 합니다.